

우리출판의 진정한 '送舊迎新'을 바라며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떠올려지는 말로 '送舊迎新'이 있다.

묵은 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한다는, 연말연시에 가깝직한 그렇고 그런 감상이 굳이 떠올려지는 것은 그 말 속에서 단순한 시간의 경과만이 아닌 어떤 당위론적 가치의 이행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해의 성과를 결산하는 요즘 같은 시점에서 '송구영신'이란 말은 '버려야 할' 묵은 것을 버리고 '맞이해야 할' 새것을 맞이하는 일로 해석된다.

다시말해 90년대의 첫해를 보내는 이제, 우리출판계가 버려야 할 묵은 폐습은 무엇인지, 혹은 그것이 버려지지 않은 채 91년으로까지 이월돼 다시 답습되는 것은 아닌지, 보다 적극적으로는 91년이란 미래공간에서 우리 출판이 새롭게 구현

시켜야 할 가치는 어떤 것들이어야 하는지 등의 반성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과연 진정한 '송구'와 '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물음이다.

이 물음에 '그렇다'고 자신할 수 없다면, 말의 엄격한 의미에서의 '결산'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출판에 관한 한 1990년이라는 한 연대는 결코 제대로 마감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컨대, 올여름 한때 지방서점의 집단휴업사태까지 불러온 '마진율공방'과 '채택료시비'를 비롯해 끝내 출판사대표 구속까지 이른 저작권 침해 문제, 역시 잡지사대표가 구속된 음란출판물 문제 등의 '구악'이 청산되지 않은 '송구'의 의미가 무엇이었으며, 흔히 정보화사회로 지칭되는 21세기로의 진입을 앞두고 그에 걸맞는 출판의 진지한 자기변신과 새로운 위상정립이 등한시된 채로의

'영신'이 갖는 의미는 또 무엇이겠느냐는 반성을 떠올리게 된다.

물론 올 한해동안의 우리출판의 대차대조표가 마냥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몇가지 흠이 지적되기는 했지만 사상최대의 도서축제로 '90서울도서전이 5년만에 재개됐고, 두루 만족스러운 수준은 못되지만 어쨌든 새 공공도서관법이 국회에 상정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한편으로 도서수요의 바람직한 자국이 될 도서상품권제도가 부활돼 그 조속한 시행을 위해 출판계의 중지를 모으고 있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버려야 할 묵은 것과 맞이해야 할 새것을 제대로 판별해내는 일이 아닐까 싶다. 버려야 할 묵은 것이 적을수록, 그리고 맞이해야 할 새것이 풍부할수록 우리출판의 미래는 건실한 것이 되지 않을까 싶다.

'송구영신'은 연말연시의 으레 그런 수사학적 표현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송년호를 만들며 느낀다.

—강철주 부장

출판저널

통권 제74호/1990년 12월 5일 발행

발행인—鄭鎮肅
편집인—李起雄
인쇄인—李壹秀
편집부장—康鐵柱
기자—金芝媛 鄭素淵 崔兌源 鄭蕙玉 朴南貞
디자인—尹貞子
사진—全惠敬

업무부장—尹東鎬
업무·광고—李義天 崔炳天 金允淳 金敏姬

등록 1987년 9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광일사전산사자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편집서평의원

- | | | | |
|-----|-----|-----|-----|
| 琴章泰 | 金光秀 | 金文煥 | 金炳翼 |
| 金錫滿 | 金聖坤 | 金彥鍾 | 金榮漢 |
| 金仁會 | 金鍾元 | 金治淳 | 金泰俊 |
| 金泰賢 | 金泰亨 | 朴明淳 | 朴星來 |
| 朴世熙 | 潘星完 | 邊衡尹 | 徐淵昊 |
| 宋相庸 | 申福龍 | 愼鍾廈 | 安秉永 |
| 安輝濤 | 梁文吉 | 吳光洙 | 柳一相 |
| 尹志寬 | 李康淑 | 李瑋薰 | 李光周 |
| 李基相 | 李斗暎 | 李萬烈 | 李炳勛 |
| 李相日 | 李勝羽 | 李元鏡 | 李重漢 |
| 李姬載 | 林煥燮 | 張必和 | 張會翼 |
| 鄭丙圭 | 鄭秉鍾 | 鄭雲暎 | 鄭晉錫 |
| 鄭鎮弘 | 曹大鉉 | 崔鍾庫 | 韓相震 |
| 韓勝憲 | 許碩烈 | 洪延善 | 黃鉉產 |
- (가나다 순)

「출판저널」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예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0,000원(10호분) 또는 18,000원(20호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부터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예약은 10호분 또는 20호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동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임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기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독서퀴즈

다음 문제의 정답을 12월30일까지 「출판저널」 독서퀴즈 담당자앞(110-190·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으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때는 문제가 실린 「출판저널」호수를 명기하시고, 우편엽서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출판저널」 제76호(1월20일자)에 발표됩니다. 정답을 모두 맞힌 독자 중 5명을 추첨, 민중서림에서 펴낸 「民衆愛國語辭典」(정가 10,000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이번호 독서퀴즈는 한국의 고전적 명저로 꼽히는 책들 가운데 語學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출제했습니다. 다음에 든 '가'항의 책이름과 '나'항의 해제를 서로 맞는 것끼리 짝을 지어 주십시오.

가. 책이름

- ① 東國正韻
- ② 新增類合
- ③ 訓蒙字會
- ④ 諺文志

나. 해제

① 조선 성종조의 대학자 崔世珍의 저술로 원래는 종전의 「千字文」 등이 지닌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씌어진 어린이용 한자학습서이나, 본래의 집필목적보다는 이 책의 범례에 실린 한글 字母 부분이 더욱 빛을 발한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 성종조에 이르는 한글변천사를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

② 훈민정음 창제 이후 400여년만에 씌어진 가장 본격적인 국어연구서로 서문을 비롯, 초성례, 중성례, 종성례, 全字例의 다섯 대목으로 구성돼 있다. “한자음을 밝히기 위해 저술한 것이 아니다”라는 저자 柳愔의 말에서 알 수 있듯 한자의 굴레에서 벗어난 참다운 우리말 연구의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는 책.

③ 중국의 「古今韻會舉要」를 우리말로 번역한 책으로 세종의 명을 받아 신숙주, 성삼문, 박팽년, 안평대군 등이 편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우리나라 한자음을 바로잡고 통일하기 위해 엮어졌으며, 훈민정음과 표리를 이루는 책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신숙주의 「서문」이 특히 유명한데, 중세 음운학 연구의 최고봉을 이룬다고 평가된다.

④ 千字文과 더불어 조선시대 어린이들의 한자학습서였던 「유합」의 부족함과 결함을 수정보충한 책으로 조선 明宗때의 학자 柳希春이 편찬했다. 총 3천자의 한자가 수록돼 있는데 한자 한 자마다 음과 훈을 달아 당시의 우리말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개화기 때는 서양인들의 우리말 학습서로 쓰여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72회 독서퀴즈 정답

「독서퀴즈」에 응답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2호(11월5일자) 퀴즈에 응답해온 엽서는 모두 61통, 이중 정답자는 43통이었습니다.

당첨자 중 서울에 계신 분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발표일자로부터 한달 이내에 「출판저널」

편집실로 직접 오셔서 상품을 받아가십시오. 지방에 계신 분께는 우송해 드립니다.

- ① 東史綱目 -③
- ② 燃藜室記述 -④
- ③ 海東釋史 -①
- ④ 韓國痛史 -②

당첨자

- 조기범(서울시 서초구 방배 3동 539-182 삼화타운 102호)
장은주(경남 밀양시 삼문동 146-3 2/15)
김경옥(강원도 삼척시청 세무과)
조성진(충남 태안군 소원면 만리포고등학교 서무과)
조진숙(서울시 동대문구 장안 3동 354-5 동대문구인회관 307호)